

# 지상진료실

## 제2기 매독에서의 Mucous patch

서울치대 구강진단학교실  
이 승 우 교수

제2기 매독(syphilis)의 증상들인 피부발진, 목의 통증, 전신적인 임파선 비대등은 제1기 후 6주경에 나타난다. 그러나, 제2기의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2년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제2기는 미열, 두통, 식욕부진, 권태감 등으로 부터 시작되며, 피부발적은 반점, 구진, 반점성 구진이나 태선양으로 나타난다. 한편, 목의 통증은 편도선의 종창과 염증으로 인해 나타난다. 전신적인 임파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무통의 촉진가능한 결절이 나타난다. 구각부위에 습하고 평

편한 구진(condyloma late 혹은 split papule이라고 불림)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구진은 candida 감염과 비슷한 양상을 띠며,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부위에 나타난다. 또 다른 특징은 구강점막에서 볼 수 있는 점막 반점(mucous patch)이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제2기 매독의 유일한 임상소견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진단이 쉽지 않다. 소개된 사진은 제2기 매독을 앓고 있는 19세 여자의 임상양상으로, 혀와 협점막, 그리고 하순내면에 점막 반점을 가지고 있다.

